

PEOPLE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무안 양파 수확작업 일손 지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경진원은 지난 17일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의 농가를 찾아 농번기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양파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이번 봉사에는 임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 수확에 힘을 보탰다. 이성희 원장은 “오늘 우리가 흘린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기일자리진흥원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한마음 농촌일손 집중지원의 날

농협 광주본부는 18일 광주 북구 충효동 일대에서 ‘한마음 농촌일손 집중지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농철 심화되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알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행복농촌봉사단’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광주지연합회, 광주교통공사, 롯데아울렛 수완점 등 지역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도농가의 봉지 씌우기 작업을 도우며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섰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촌 일손돕기에 함께 해 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관기관,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금곡마을 포도농가 방문 봉사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최근 북구 금곡마을 포도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사육대봉사단 30여명은 2200㎡(700평 규모)의 포도밭에 심어진 나무 500여그루에 포도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포도 봉지 씌우기는 포도를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해 품질 좋은 포도 생산을 위한 필수 작업이다.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범농협 광주본부 행복농촌봉사단과 광주교통공사 임직원도 일손을 함께 보탰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응원합니다”

한춘옥·주중섭 전남도의원 릴레이 챌린지 잇따라 동참 “동부권 문화·관광 만끽하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17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홍보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참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를 찾은 많은 방문



한춘옥 전남도의원

객들이 여수와 인접한 순천 등 전남 동부권 다양한 문화와 관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중섭 전남도의원

한춘옥 의원은 전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같은날, 전남도의회 주중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섬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깃든 문화의 보고”라며 “많은 사람들이 섬이 지닌 가치와 문화를 함께 느끼고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섬 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도시 지역과 아름다운 리아스식스 해안 등이 글로벌한 관광 콘텐츠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국내외 섬과 해양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전남의 해양·섬 정책에 새로운 방향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무안노인대학서 특별강연

“지역 살리고 미래를 여는 대학, 국립목포대가 앞장”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은 18일 오전 10시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한 무안노인대학에서 제3기 수강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목포대학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목포대의 현재 성과와 미래 비전을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목포대는 지난해 교육부 글로벌대학 30사 업의 연차평가에서 전국 20개 대학 중 유일하게 최우수(S등급)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지역혁신 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송하철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성과를 소개하며 “이제 대학은 더 이상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미래를 여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하철 총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성장해야 다시 지역에 힘이 된다”며 “국립목포대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 산업과, 그리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지역혁신 국립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강연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오늘 소개된 대학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송하철 총장은 무안노인대학 수강생 대상 캠퍼스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강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송하철 총장의 설명에 깊은 공감과 호응을 보이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변화와 비전을 갖춘 대학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큰 박수로 화답했다.

‘마약 반입 차단’ 정영덕·조해인, 6월 으뜸 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 “기여 인정 포상”

광주본부세관은 18일 마약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 정영덕·조해인 주무관을 ‘6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정영덕 주무관은 마약 적발사례 연구와 정보분석을 통해 특이한 패턴을 보인 우범 여행객을 핀셋 선별해 검사 지켰했다. 조해인 주무관은 마약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공편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정밀판독을 통해 해당 수화물을 집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들은 협업을 통해 마약 조직이 메트암페타민 3.6kg(12만명 동시 투약분)을 밀반입하려던 것을 적발한 데 기여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매달 탁월한 업무 성과를 올린 세관관을 선정해 포상한다”며 “앞으로도 마약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덕·조해인 주무관이 마약 밀반입 단속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으뜸세관인으로 뽑혔다. 정현기 기자 aura@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3억 전달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3억원을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금은 ‘광양시 에너지 효율화 및 복지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광양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으로는 노후 주택과 장기요양시설의 창호·삿시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노후 차량 교체,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광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함께 웃고 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LH, 재능모아봉사단 2기 발대…재능기부 환원 등 품앗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8일 임대주택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LH 재능모아봉사단’ 2기 위촉장을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재능모아 봉사단’은 임대주택 입주민이 LH 작은도서관을 통해 먼저 배운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다. 도서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입주민이 복지기관 등에 재능기부로 환원하는 품앗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재능모아봉사단은 지난해 지역복지기관 발달장애인 대상 48회 품앗이 봉사활동으로 지역민의 호응을 얻어 이번 2기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 LH는 봉사단 인력구성, 사회복지기관 매칭 등을 통해 봉사단이 재능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달에는 공립특수학교인 선예학교와 함께하는 공예체험을 시작으로 60회 재능봉



사를 진행한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2기 재능모아봉사단의 재능나눔으로 지역사회 따뜻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더욱 튼실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서구, 여름철 우기 대비 합동 점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8일 서구 양동시장 하부주차장 일원에서 광주경찰청, 서부소방서와 함께 여름철 우기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지원2동 영암만점 마음든든 밑반찬 나눔 광주 동구 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환중)는 최근 건강한 반찬 3종 세트를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하는 ‘영암만점 마음든든 반찬나눔’ 사업을 개최했다.